

[기획]

광주일보 전남대 문화예술사업단 공동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제6부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

<25> 가족·지역사회 배려 절실

기고

다문화사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同化 강요 말고 동반자 인식해야 '상생'

"국제결혼을 선택한 이주여성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모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일방적 강요보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28일 해남 군민광장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해남군과 해남결혼이민자연대가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 최초로 '제1회 베트남의 날'을 개최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베트남 전통의상 행렬 ▲쌀국수 등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 춤·노래 공연 등 베트남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 행사는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 가족과 지역민들에게 베트남의 문화와 풍습 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 행사는 눈길을 끌었다. 기존 교육 위주의 획일적 지원프로그램에서 탈피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한국생활에 임할 수 있는 '이해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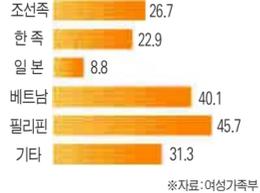


지난 5월 광주여대에서 열린 문화축제 '아사아사' 행사에 참가한 이주여성들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고 있다. 이 행사는 각국의 문화와 풍습을 가족과 지역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 행사는 각국의 문화와 풍습을 가족과 지역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 행사는 각국의 문화와 풍습을 가족과 지역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비교 (단위: %)



이주여성의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



해남결혼이민자연대 임선규 회장은 "베트남의 날은 이주여성들에 대한 '동화'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및 지역사회의 '공생'을 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주여성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라도 출신 국가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 품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방적 '한국 적응' 강요 및 사회적 차별 '이중고'="온누리안" 가정이 급증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을 택한 이주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사회의 배타적 성향으로 인해 결혼 생활과 육아 과정 등에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주여성 가운데 28.7%가 한국생활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 여성의 경우 차별 경험 이 각각 45.7%, 40.1%에 달하면서 한국사회의 배타적 성향을 반영했다. 언어와 외모가 비슷한 조선족 출신 여성의 차별 경험도 26.7%에 달했다. 또 이들 이주여성의 43.8%는 출신 국가보다 한국에서의 '여성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별로는 일본 출신 여성이 65.4%로 가장 높았고, ▲한족(62.0%) ▲조선족(45.3%) ▲필리핀(31.5%) ▲베트남(17.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가운데 44.9%는 한국에서의 여성 지위가 낮다고 응답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40.4%)보다 지위 하락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주여성의 개인적 존엄성보다 가부장적인

관이나 인권 신장 등은 외면해온 것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일정한 검증절차 없이 동반이주여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나서면서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남편이나 가족들부터 모국의 문화나 가치관 등을 먼저 이해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최근 여성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 이주여성들은 남편의 역할에 대해 "아내를 배려하고 조언을 주고받는 동반자"라는 응답이 67.8%로 가장 많았다.

이는 ▲"능력있고 돈 잘 버는 사위인"(18.0%) ▲"가사분담을 잘하는 남편"(5.4%) ▲"시댁과의 관계에서 아내를 지지하는 남편"(3.2%) 등의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남편의 이해와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조선족 출신 이주여성 정모(35)씨는 "결혼 초반에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문제는 언어나 음식의 차이가 아니라 두 나라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의 일방적인 태도였다"며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나 가치관, 성향 등이 확연히 다른 데도 이를 무시한 채 행방만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싫어진다"고 반문했다.

이주여성의 문화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국의 가치 질서에 대한 통합'을 우선시하면서 해당 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가족과 지역사회부터 다문화·다문화사회의 전환을 긍정적 시각으로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지역사회 이해와 배려 '절실'=그동안 국내 이주여성 지원정책은 한국의 문화나 언어에 대한 동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혼이나 가출 등 각종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 이주여성을 농촌 층과의 결혼 및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 방안으로만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가치

필자는 지난해 10월 광주시교육청에서 주관한 '다문화가정 남도문화 체험' 행사 운영교사로 참여했다.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행사에서 벗어나 시부모, 남편, 자녀 등 가족구성원이 함께하는 대규모 체험행사였다.



김정우

점심 식사 후 장기자랑 대회가 열렸는데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한국 노래와 춤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 며느리에게 저런 끼가 있는 줄 미처 몰랐다"는 어느 시어머니의 말을 통해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들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 한국음식 강좌 등 한국문화 체험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나 가치관을 주입하려고 했지, 정작 그들의 처지나 문화를 이해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무뎠던 것 같다.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결혼을 한 부부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타문화에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돼야겠다. 이주여성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교육은 결혼 3년 이내에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 한국문화 배우기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이주 여성들의 언어, 풍습, 가치관, 생활방식 등 다양한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둘째, 올해부터 지정된 '다문화교육연구학교' 운영을 시점으로 학교교육부터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교육활동이 전개돼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차별과 평등교육을

가치관, 생활방식 등 다양한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둘째, 올해부터 지정된 '다문화교육연구학교' 운영을 시점으로 학교교육부터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교육활동이 전개돼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차별과 평등교육을

을 어릴 때부터 교실에서 실시해야 한다. 또 교직원 연수는 물론이고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도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광주시에서 추진중인 '다문화 패밀리센터' 건립이 조속히 착공될 바란다. 패밀리센터 운영을 통해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그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열린 마음과 시각이 필요하다. 단일민족 중심의 순혈주의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우리 사회에서 이주여성 등 소수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편견과 차별이 아닌, 평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다수자의 문화에 소수자들에게 융화시켜주는 '용광로(melting-pot)' 정책에서 벗어나 소수자들의 인권과 문화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샐러드볼(salad bowl)'의 문화로 거듭나야 한다.

(광주광천초등학교 교사)

1년복리정기예금 연수익률 5.85% [확정금리]
별조타운 1층(법원 앞) ☎ 062)233-0717
여수지점 ☎ 061)660-0114
순천지점 ☎ 061)724-3399
상업저축은행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교.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지/임야/전답.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교.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지/임야/전답.

Table with columns: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교.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지/임야/전답.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교.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지/임야/전답.

본 공고의 부속은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1. 목적지: 광주광역시 북구...
2. 매각대상: ...
3. 매각일: ...
4. 매각장소: ...
5. 매각방법: ...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
8. 주의사항: ...

2007. 9. 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미숙